

보성군 총무공 '한산도가' 태생지 '열선루' 복원

재침한 왜군이 전라도 방면으로 밀려들던 1597년 8월(음력), 선전관 박전봉이 선조가 내려보낸 유서통(諭書筒)을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한다. 문서에는 '수군을 역파하고 육군에 합류해 싸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비장한 장계를 작성해 올린다.

원군이 이끌던 조선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하자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오른 이순신 장군이 군사와 무기, 식량 등을

군량미 길 등 임진왜란 유적

복원사업 프로젝트 용역 발주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모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보성 열선루(列仙樓)에 머물 당시의 일이다.

보성군이 열선루 등 총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 복원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의 토대가 된 열선루, '군량미 길' 등을 복원해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보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군은 이순신 장군 유적복원사업 프로젝트

트 연구용역을 발주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예산과 사업내용 등 기본계획을 확정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선루 위치는 보성교회 자리(보성을 새싹길 66번지)로 추정하고 있다. 백의종군 도중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 장군은 변변한 무기나 군사를 갖추지 못해 구례~곡성~옥과~순천~보성을 거치며 식량과 무기, 군사들을 모으고 있었다. 보성에서는 열선루와 득량면 송곡리 박실마을에서 잠을 잤다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 열선루에서 '수군폐지 불가론' 장계를 썼고, 한시 '한산도가'를 지었다고 한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어

디서 일성호가(一聲胡茄)는 남의 애를 끊나니."라는 시는 당시의 심경을 잘 담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보성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장군은 보성현청 무기고에서 활과 무기를 4마리 말에 나눠 싣었고, 조양창(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유천리 고내마을)에서 많은 군량을 확보했다. 장군은 군영 구미(보성군 화천면 군학마을)에서 배에 올라 회령포(회진항)에서 선단을 이끌고 벽파진으로 향한다. 9박10일간 보성에 머물며 확보한 병사와 무기, 군량 등은 명량대첩의 원동력이 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준 곳이자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열정, 화란이 배인 고장"이라고 말했다./보성=김용백기자 kyb@



우석 선생 '나눔 정신' 11년째 실천

고흥 기념사업회 백미 950포대 소외이웃 전달

우석 김세기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위)가 11년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3억6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 지역 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사진)

기념사업회는 최근 고흥군 동강면 죽암농장(대표 김종욱)에서 우석 선생 11주년 추모식과 함께 4개면(동강·과역·남양·대서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230명과 경로당 140개소에 백미 20kg 950포(47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우석 선생은 동강면 죽암리 일원에 200여만평의 간척지를 일구면서 고흥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동시에 지역 농업

발전의 큰 획을 남기신 분이어서 평생을 도전과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살아온 한국 농업의 개척자였다.

특히 우석 선생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대역사를 이룬 이후에도 작고하기전까지 농업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과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배움을 실천했다.

죽암농장은 올해 전국 최초로 벼 2기 작(二期作)을 한 논에서 벼농사를 두 번 짓는 것에 나서는 한편 우석 선생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자세를 이

여가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 류중원씨 유자골 한우 전국 평가대회 국무총리상

고흥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충북 NH농협 음성 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고흥군 두원농장 류중원(68)씨의 한우가 전국 124명 가운데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립축산식품부와 한국축육 개량협회, 전국 한우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고흥한우는 1++A 등급을 받아 총점 874.70을 획득했다.

지난 2012년도 제15회 대회에서도 대회 추진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류씨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차근 차근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시상식은 오는 13일 aT센터 코엑스에서 열린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골 고흥한우가 전국 최상위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979년부터 전국 최초로 두원면에 한우 개량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종축개량에 매진해 왔으며, 미생물사료 개발 급여 등 한우 농가들의 사양관리 노하우가 접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17년까지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이 완료되면 한우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가공과 고급육 판매가 늘어나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 제83호인 '유자골 고흥한우'는 최근 종축개량협회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출현율이 31%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김장철 맞은 보성 쪽파 수확 한창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보성군 화천면 들녘에서 쪽파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보성지역은 득량·화천면 일대 850ha(1130농가)에서 쪽파를 재배, 260여명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보성군 화천면 들녘에서 쪽파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보성지역은 득량·화천면 일대 850ha(1130농가)에서 쪽파를 재배, 260여명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성·장흥·구례군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우수상

곡성군과 장흥군, 구례군이 최근 서울 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CDP Cities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생산성 본부와 CDP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곡성군은 개인부터 공공기관까지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건강 대책과 신농업기술 개발 등 6개 분야 기후 변화 대응·적응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 도시숲 조성, 나무심

기, 공공시설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절약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례군은 친환경 기업유치와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 마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구례=이성구기자 lsg@



곡성읍 단군전에 애국지사 백당 신태운 기념관 개관

애국지사 백당 신태운(1884~1961) 선생 기념관이 최근 곡성읍 곡성읍 단군전에 개관해 무료 운영되고 있다.

백당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곡성 3·1운동을 주도해 3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광복 이후 조선대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한국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민족 자주독립을 주창했던 애국지사다.

기념관은 (사)곡조단군 곡성송모회(대표 김학근) 주도로 곡성군 유지들과

출향인사 재경향우회, 재광향우회 전·현직 회장들이 적극 협찬해 총사업 1억 4300만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300만원)을 들여 한옥으로 세웠다.

기념관내에는 백당 선생의 옥중 저서인 역사인정사, 도해삼일신고, 고려사절요, 대한사략운기 등과 단군에 관련된 서적, 대한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도서, 백당선생 관련 신문 기사·사진·도서를 전시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태양) • 시공사 | 건해중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